

# 더민주, 대대적 호남 물갈이 시작되나

지역위원장 다음달 1~3일 전국 253곳 공모

## 총선 패배 엄격한 잣대·'정치 신인' 교체 딜레마

### 차기 당권·대권 주도권 싸고 계파간 힘겨루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호남에서 대대적인 지역조직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를 시작한 더민주

인 지도부'와 당내 다수파인 친노·친문간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해찬 전 총리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위원장 인선 문제가 계파갈등의 핵

◇ 호남 물갈이(?) 예고에 광주 '신인 공천' 딜레마=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다음달 1~3일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장을 공모한다.

조강특위는 다음달 8일 다시 회의를 열어 후보 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호남 위원장들이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강특위 간사인 이연주 의원은 "정권 교체를 함께 할 참신한 인재를 찾기로 했다. 특히 총선에서 패배한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의 당헌·당규에 따라 총선에 나

섰던 후보들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낙선 지역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참패 지역인 호남의 교체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혁신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낙선자의 경우 지역위원장 선정에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갑작스레 물갈이를 하면 가뜩이나 국민의당의 출연으로 기반이 약해진 지역조직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광주의 경우 현 지역위원장인 총선 후보들이 대부분 사실상 '정치신인'이라는 점도 고민이다. '참신함'을 무기로 선정한 인물들을 불과 두달 만에 물갈이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

◇ '친노다수' 구도 바뀔까...세종시 임명 여부 관심집중 =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 인사들이 얼마나 교체될지도 주요 관심거리다.

김 대표가 조강특위에서 친노 인사를 사실상 배제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친노 원외 지역위원장에 대한 교체작업이 이뤄질지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대표가 1차 조강특위 회의에서 "오래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슈아내야 한다"고 한 것도, 지역을 장악한 친노진영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물갈이 작업이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입당에 가능해진 후 지역에서 친노성향 당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도부가 '친노 물갈이'에 나선다면 반발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세종시 지역위원장 선임 문제가 계파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만일 세종시에 새 지역위원장을 임명한다면, 이 전 총리가 복당해 지역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노진영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총리 측 인사는 이와 관련해 "당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복당 심사를 미루더니, 이제 지역위원장까지 새로 공모 하는 것인가"라며 "실제 임명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았다.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반기문 JP 예방...대선은 언급 피해

### "내년에 뵙겠다" 여지 남겨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8일 김총필(JP) 전 국무총리를 전격 예방했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신당동 자택을 예방해 김 전 총리와 30분간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다고 김 전 총리 측이 전했다.

김 전 총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 총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내가 얘기할 게 없느냐. 비밀 얘기만 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의 대권 출마설 등에 대해선 "내가 이야기할 것은 그것 뿐"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반 총장과 김 전 총리 예방후 무교동에서 가족 만남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

나 "(지난 13일) 육사 졸업식에서 저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제가 작년 구순때도 서울 오면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는 질문에는 "그런 말씀은 안 나왔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만 답했지만, 충청 대망론에 대한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고 다음에 내년 에 와서 뵙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만남은 반 총장이 지난 25일 "내년 1월 1일이 한국 시민으로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겠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 '충청 대망론'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

## "韓-에티오피아 친한 친구 되길"

### 차대통령, 개발협력 모델 '코리아 에이드' 현장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알리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몰라투 테소메 에티오피아 대통령과 함께 코리아에이드 사업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살피고 현지인들의 소감을 들었다.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진행된 코리아에이드 현장에는 진료차량 1대와 구급차 2대, 푸드트럭 3대와 냉장트럭 1대 등 모두 10대의 차량이 동원됐고, 150여

명의 현지인들이 한국음식과 문화를 체험하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쌀과자와 분말 등을 실은 푸드트럭을 방문한 뒤 "이것을 먹어본 분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에티오피아 입맛에 맞아요"라고 물었고,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몰라투 대통령은 "쌀과자 가공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 등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23명이 방문해 결의문을 발표하며 세월호 문제에 함께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현장 찾은 더민주 당선인들 "진상 철저히 규명"

### 박주민·이재정 등 22명 '희망 결의안' 발표·눈물의 등원 결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등 22명이 제 20대 국회 등원을 하루 앞둔 29일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군 팽목항과 사고해역을 찾아 등원 결의를 다졌다.

이재정 원내대변인과 박주민·표창원·손혜원 당선인 등 22명은 이날 오전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하고 임시분향소에서 헌화·분향했다.

이어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가족협의

회·세월호 특조위,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면담했다. 당선인들은 간담회 직후 "세월호 참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최우선 사명이다"는 내용으로 '팽목에서 띄우는 희망 결의안'을 발표했다.

또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과 이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기한 보장과 선체 조사 예산 배정 ▲특조위에 정밀조사 권한 인정·인양과정 공개 ▲선체 온전한 인양·특조위 인양 감시 협력 ▲특검 통한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가족들과 면담한 당선인들은 해수부 인양 관계자에게 인양 전 과정 공유, 세월호 인양 후 보존계획 마련, 선체 정리 업체 재입찰 특조위와 협의 등을 요구했다.

한 당선인은 가족들에게 "세월호 문제

만은 야당이 함께 묻쳐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수습자 가족은 "오늘 당선인들의 방문이 기사 한 줄로 요약되는 행사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낚시배 두 대에 나눠 타고 사고해역에 도착한 당선인들은 인양 공정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인 '선수들기' 작업을 임시 중단한 상하이 셀비지 작업원과 사고해역을 둘러봤다. /\*최권일기자 cki@

## 경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축 오픈

## 모집

###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